

בֵּית סֵפֶר (책의 집)

『사랑이 한 일』

이승우 씀, 문학동네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내보일 수 없고,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감출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잠깐 위장할 수는 있지만 오래 속일 수 없고,
한때 감출 수는 있지만 결국 드러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랑이다.”

“떠나기 위해 갈 곳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은 떠나지 못한다.

어디를 향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움직이는 것이 핵심이다.

도착해야 할 어딘가를 향해서가 아니라,

떠나야 할 어딘가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 안산가족 소식

은혜와 평화의 동산 **안산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우리교회의 예배를 소개합니다.



- 주일 낮 예배: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표'를 읽으며 예배드린 후,
한 주간 동안 묵상하고 실천합니다.
- 찬양예배: 매월 첫 주일 오후에 모입니다.
- 수요기도회: 매일성경 '그룹 큐티 나눔'을 교재로 활용합니다.
- 새벽기도회: 매일성경 성서암기표를 활용하여 주 4회(화-금) 모입니다.
- 일상기도: 다락방과 중보기도 제목을 활용하여 일상에서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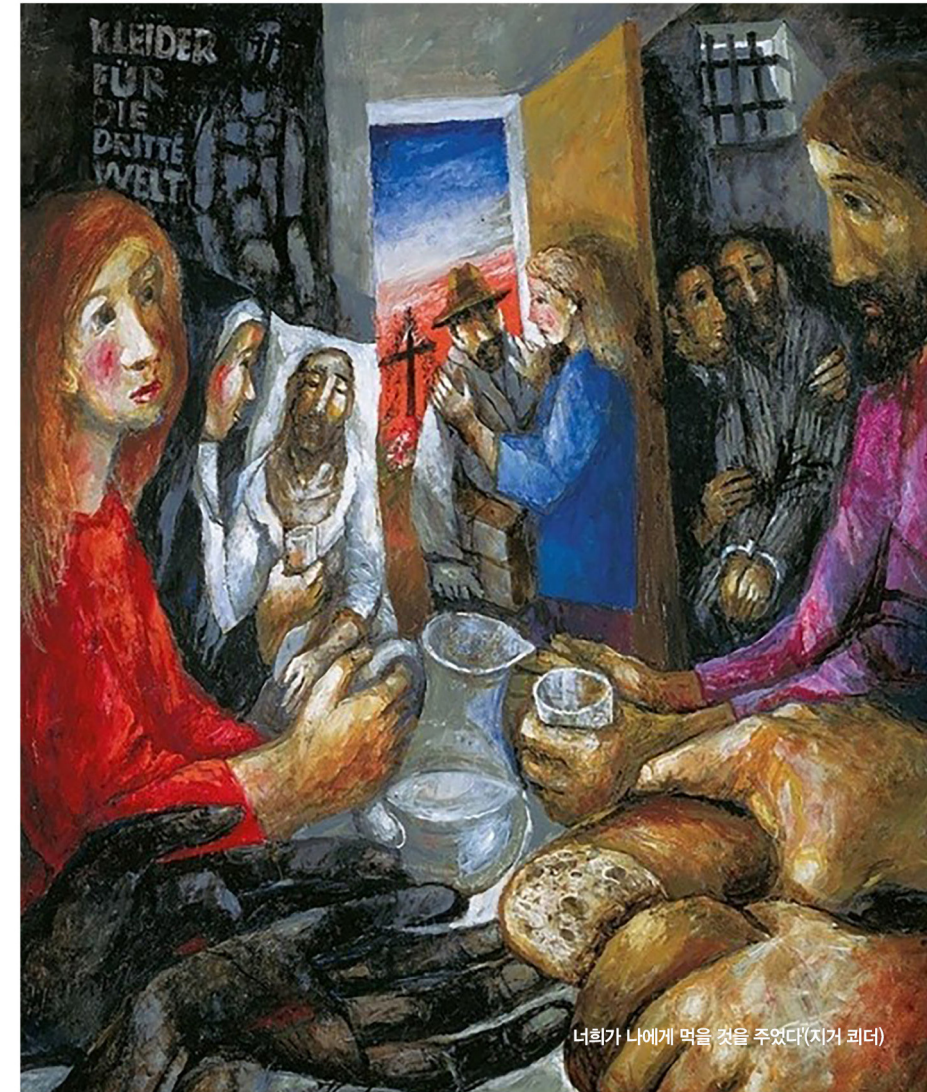
1. **예배** ① 주일예배: 오늘은 '주님의 산상변모주일'이며, 다음 주일은 사순절(四旬節) 첫째 주일입니다.
(공동기도문과 지난 주일 설교 요약문은 사무실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2. **모임** ① 정기 제작화: 낮 예배 후, 본당
3. **3월 오후 활동 안내**
 - 2일(기쁨주일): 찬양예배
 - 9일(배움주일): 영화감상 '소풍' (2024년)
4. **항존직 공부 및 독서 모임**: 3월부터 매월 넷째 주일 예배 후 모입니다.
5. **오늘은 '이삭줍기'** 헌금 주일입니다.
6. **기증**: 민경오 장로님 · 박종애 권사님 가정, 식기 세척기
7. **중보기도 제목**
 - 코로나19 극복과 교훈(공존, 공생)을 잊지 않기를
 - 우크라이나, 팔레스타인 및 한반도의 평화와 빈부격차, 이념 및 세대 갈등 해결을 위하여
 - 한국교회의 회복과 사명 감당을 위해
 - 동역자들(방글라데시, 필리핀, 동백사랑교회, 여은교회)을 위하여
 - 노년의 평화와 산모, 고난 당하는 교우들을 위하여

† 신앙실천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또 한 번의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 영혼을 허무에 빠뜨리지 않도록
감사로 채워봅시다.

† 예배 및 자치회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선 교회	연 령
주일낮예배	오 전 11 시	본 당	아 브 라 함	남 성 교 우
수요기도회	오 후 7 시	소 예 배 실	에 스 더	61-70세 여성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시 30분	소 예 배 실	드 보 라	51-60세 여성
아동부예배	오 전 9 시	소 예 배 실	마 리 아	41-50세 여성
청소년부예배	오 전 9 시	청소년부실	한 나	40세까지 여성
YouTube 채널: 여수안산교회 온라인 헌금계좌: 신한 061-691-7315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지겨 쿼터)

제51권 09호

2025년 3월 2일(주님의 산상변모주일)

제109회 총회주제 :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겔 37.14, 행 9.31)

안산교회는 1974년 4월 여천군 월내리에서 설립 후 안산동으로 이주하였으며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여수노회에 소속된 교회로, “앞선 세대를 섬기는 공동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공동체, 영성과 지성의 조화를 꿈꾸는 공동체,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공동체”를 세워가기에 힘쓰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남 여수시 안산1길 172-10 59662

교회 (061) 691-7315 Fax (061) 691-7320 목양실 (070) 4292-8377

주 일 예 배 (주님의 산상변모주일)


주일 오전 11시	인도 : 송 혁 목사
경배와 찬양	함 께
* 입 레 송	주 찬양
* 예배의 부름	시편 121:1-2
* 송영과 기원	반주, 인도자
* 영 광 송	72장(3절 후, 간주)
함께 드리는 기도	함 께
참회의 침묵기도	함 께
위로와 용서의 말씀	인 도 자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성 시 교 독	시편 99편(성서일과표를 보며)
감 사 찬 송	285장(2절 후, 간주)
기 도	김병곤 장로
*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9:34-36(신약 107쪽)
찬 양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말씀과 성례	그들은 입을 다물고
결단의 찬송과 기도	303장(2절 후, 간주)
봉 헌	함 께
성도의 교제	함 께
* 교제의 찬양	382장(4절)
* 축 도	송 혁 목사

* 표는 일어서서 합니다. (헌금은 예배 전, 헌금함에 넣어주세요.)

다음 주 기도 - 장세중 장로

- * 3월 안내위원 : 김양자, 정희숙, 조정순, 김염희
- * 3월 헌금위원 : 김인수
- * 3월 주방봉사 : 6, 9구역

생명의 말씀



그가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구름이 일어나 그들을 덮었다. 그들이 구름으로 들어가자 두려워졌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였다. “이는 선택받은 내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소리가 있고 나서 보니 예수만 계셨다. 그들은 입을 다물고 아무도 그날 본 일에 대하여 말하지 않았다. (누가복음 9:34-36/헬라어직역성경)

가 뽐 주 일 (찬양예배)

오후 1시 30분	인도 : 송 혁 목사
기 도	이황재 집사
오늘의 찬송	584장 우리나라 지켜 주신
4월 기도 - 이상철 집사	

수 요 기 도 회

오후 7시	인도 : 송 혁 목사
찬 양	함 께
기 도	김수영 권사
성 경 봉 독	누가복음 9:22(신약 107쪽)
말씀선포와 기도	반드시 해야 한다
축 도	송 혁 목사
다음 주 기도 - 황명자 집사	

일 상 기 도 (매일성경)

날짜(요일)	목상 본문	6일(목)	누가복음 9:18-27
3일(월)	누가복음 8:26-39	7일(금)	누가복음 9:28-36
4일(화)	누가복음 8:40-56	8일(토)	누가복음 9:37-50
5일(수)	누가복음 9:1-17	9일(주일)	누가복음 9:51-62

* 우리나라와 한국교회와 여수지역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

지 난 주 일 말 씀



빛으로의 초대

(창세기 45:3-15)

[성서일과표/창세기 45:3-11, 15, 시편 37:1-11, 39-40, 고린도전서 15:35-38, 42-50, 누가복음 6:27-36]

창세기 45장 15절은 37장에서 시작된 요셉과 형제들 이야기의 대단원을 마무리하는 문장입니다. 37장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은 늙고막에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팽팽한 긴장이 감도는 서막이 가리킨 대로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이 펼쳐집니다.

성서 기자는 요셉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무슨 뜻일까요? 요셉을 알아 보고 충격과 죄책감으로 입이 얼어붙었던 형제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입을 열어붙게 했던, 다시 말하면 충격과 죄책감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뜻이지요.

창세기 기자는 바로 이 지점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 이야기를 믿음으로 시련을 극복한 감동적인 영웅 신화로 소비하곤 하지요. 성서 기자는 본문에서 어떤 결정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교회는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한 발짝도 미래로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인 ‘테슈바’를 가르치려는 겁니다.

테슈바는 회심 혹은 회개를 의미하는데 새로운 삶을 향한 돌아섬,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 새해 첫날부터 대 속죄일까지 열흘 동안 테슈바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려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테슈바의 첫 번째 단계는 잘못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형들은 이렇게 말했지요. “그렇대 아우가 살려 달라고 애원할 때 우리가 그의 애원을 들어 주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 값을 치르게 되겠다.”라고 말이지요. 그들은 요셉을 알아차리지도 못하였기에,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고백하고 반성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 가운데 시므온을 볼모로 붙잡은 후, 돌아가서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둘째 아들입니다. 요셉은 왜 큰 형인 르우벤 대신 시므온을 선택했을까요? 르우벤은 과거에 요셉을 구하려 한 반면 시므온은 요셉을 죽이려 모의한 형제들 가운데 만이의 역할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요셉은 곡식값으로 받은 돈을 몰래 형들의 자루에 다시 넣게 하였고, 그것을 발견한 형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아버지에게 그간의 사정을 설명합니다. 야콥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베냐민만은 보낼 수 없다고 버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양식이 떨어지자 베냐민을 포함한 아들들을 다시 이집트로 보내지 않을 수 없었지요.

이때 유다는 야콥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제가 베냐민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그 죄를 제가 평생 달게 받겠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테슈바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죄를 반복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한 빛 때문에 물리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후히 대접한 후 곡식과 함께 그들을 돌려보내면서, 이번에는 자신이 가장 아끼는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넣도록 지시합니다. 자신과 같이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을 노예가 되도록 내버려 둬으로써 형들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한 것이지요. 그가 다른 형제들은 떠날 수 있다고 했지만, 유다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고 아버지와 야콥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겠다고 간청합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할 기회가 주어졌고 선택의 자유도 있었지만, 이미 맛본 자유와 기쁨으로 인해 어둠으로 돌아가지를 거부한 것이지요.

요셉의 행동은 자신이 아닌 형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죄책감과 부채라는 어둠에 시달리던 형들을 빛으로 가득한 세상으로 인도하기 위한 의도적 행동이었지요. 마침내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고 드라마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는 대신 실수를 인정하고 다시는 어둠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요셉 이야기를 다시 읽으면서 길을 잃어버린 한국교회가 살길인 테슈바의 실천에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가 예수의 사랑과 은총이라는 복음 대신 물질과 권력 같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알에게 영혼을 내어주어서 안 됩니다. 같은 유혹이 밀려올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본 자유와 평화의 빛을 생각하며, 어둠의 세력을 물리쳐야 합니다. 교회력의 세 번째 절기인 주현절은 빛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삶의 방향을 돌리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살길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살롬.